

#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 우녀의 파도소리

인담과 우녀는 심심풀이도 없을 정도로 심심하기 짝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녀는 부엌일을 맡았고 인담은 양식과 빨감동축을 맡는 여느 가시비시 노릇과 다를 바 없었다.

워낙 혼자 사는 일에 오래 된 해묵은 편견처럼 익숙한 인담인지라 그는 공부할 시간을 그치지 않고 틈틈이 공부하는 지 모르도록 지극히 완만한 일상 생활 일 뿐이었다.

우녀가 그런 인담에게 한마디 걸었다.

“하루 이를 살아가면서 스님에 대한 위엄을 체감하기보다는 친숙해지는 과정이었으므로 그런 수작이 어거지일 까닭이 없다.”

“스님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당혹하였다. 당혹할 뿐 아니라 그녀를 구해준 스님에 대한 최소한의 경의(敬意)도 전혀 배제된 상태의 말이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인담은 그런 것에 걸려드는 거미를 내비가 아니었다.

“저 파도소리 들어보아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사람과 파도는 다르지 않아요?”

인담이 들리지 않는 한숨과 함께 바로 대꾸가 있더라 나왔다.

“하기가 내가 파도보다는 못한 점이 다른 것이지. 그러나 나와 파도가 본디 다른 것이 아니요.”

“아! 스님이 송도(松都) 국사봉(國師峰) 칠보(七寶)도사 시봉을 하는군요.”

“허허 내가 시봉이라면 어찌 그 국사봉 도사 시봉 뿐이리오. 삼천대천세계의 갖가지를 다 시봉하고 있는 중이리오.”

도리어 스님은 꺾듯이 경어를 쓰고 우녀는 막말을 듣고 있었다.

인담은 바위등성으로 슬치게 올라가서 그곳 소나무 숲의 고목이나 가지들을 쳐서 한 짐씩 만들어 바위 아래로 구울리는 일을 한나절이나 하였다.

사시(四時)가 가까워지자 불연(佛眼)에 마치(摩尼)를 옮길 때에 맞추려고 낮과 잘 들지 않는 톱 따위를 들고 갈대지봉의 암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무욕도 암자에서는 마지막 밥이 아니라 새벽에 뜬 첫 생물이었다. 그것으로 고대 이래의 차 공양대로 삼고 있었다.

내 지금 깨끗한 물로 감로의 차를 끓여 상보 앞에 바치오니 원컨대 어여비 받아주소서 (我今淨水 變爲甘露茶 奉獻三寶前 願聖安收受)

그누가 이 무욕도에 물이 없다 하였는가. 물론 그 물을 알지 못하는데 오는 오랜 전설이었을 터이고 또한 물이 있다는

웃었다. “부처님이 너무 작아서 좀 큰 부처님이 되라고 국물을 읊었어요. 저 아래 뿔물 기슭으로 내려가 생굴도 따고 계도 잡아서 그것으로 죽을 끓여 한 그릇 읊었어요. 부처님이 우쪽 자리란 것 같지 않아요?”

인담은 그 국을 죽각 내려 하다가 참았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시 공양의 예법을 간결하게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곧 겸상의 밥상이 들어왔다.

만약 누가 이 겸상에 마주 앉은 인담과 우녀를 본다면 그것은 열라없이 무덤 없고 허물없는 부부로 보아도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담은 밥만 소식(小食)으로 먹었다. 우녀는 밥과 국을 든든하게 다 먹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올 때보다 훨씬 풍요



5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어떤 처사가 있었을지 모른다. 이 무욕도의 갈대지봉 암자는 인담이 창건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암자가 있던 터에 새로 집을 지은 것이었다. 그것을 지은 뒤 첫날밤에 인담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조각달 꿈을 꾸었다. 그래서 저 혼자 암자 이름을 반월암(半月庵)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나 곧 그 이

(夢)해지고 있었다. 얼굴의 빛깔도 무척이나 달빛을 머금어 맑아져 있었다. 밥상을 풀린 인담은 국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바닷가로 내려가 그 그곳 안의 국물을 다 쏟아 버렸다. 그를 뒤따라 온 우녀가 그 풍경을 아릿하게 보고 있었다. “저기를 보아요” 라고 인담이 말하였다. 그녀가 방금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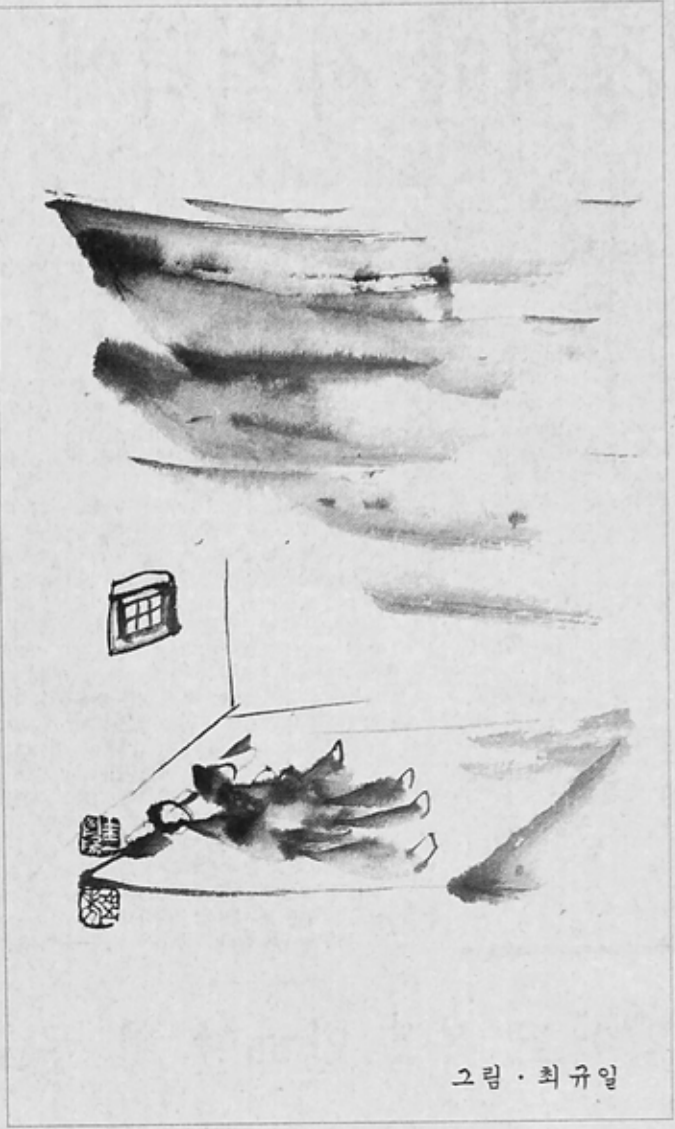


그림 · 최규일

를 바 없이 될 것이요.”

그때야 한마디가 촉촉한 목소리로 건너왔다.

“언제 돌아오세요?”

“달포쯤이 될까.”

“어머나 어머나 너무 길어요.”

“달이 사위었다가 다시 풍글어지는 동안인데...”

“꼭 가셔야 되어요?”

“다녀와야 합니다.”

“양식 때문이라면 제가 내일부터 하루 한끼만 먹겠어요.”

“아닙니다.”

“그럼!”

하고 그녀가 다시 등을 돌려 인담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럼 지금 저를 풀어주세요. 저를 아내로 삼아 주세요.”

인담이 입을 다물었다가 열어야 하였다.

“...언젠가 그럴 날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서로 약조한 대로 무사(無事)하게 지내십시오.”

파도소리가 커졌다. 그 파도소리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밤은 능히 깊은 아침과 기쁨의 절정에서 울부짖어 파도소리를 거절해야 하였다.

하지만 인담에게는 나무 끄트머리 우물지처럼 공중의 어둠속에서 어떤 유혹에도 건디는 고독으로 차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인담의 시 한 줄이 떠올랐다.

오디 익는 보리누름  
녹을 속 피꼬리 노래  
(田家蒸熟麥穗  
綠葉黃花舞樂圖)

달포라고 말했지만 내년 여름이나 돌아올 사정을 앞당길 수 없는 형편에 어울리도록 오디가 익는 것과 보리가 익는 일을 합치시킨 시인의 재능이 놀라웠던 것이다.

새벽에 종송(鐘送)을 할 시간인데 우녀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담이 그녀의 이불자락을 조심스레 건드렸다.

그때 우녀의 손에 식칼이 들려져 있었다.

“종은 왜 칩니까? 철위산(鐵衛山)의 어둠 다 몰아내고 지옥 아귀 축생의 괴로움 다 여의게 하고 칼산의 지옥을 부수어 버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식칼도 지옥의 칼 아닐까요? 나를 아내로 삼지 않을 작정이면 이 칼로 아내 불붙은 가슴을 찔러 주시오. 스님!”

흰한 먼뽕 빛에 스며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미 여며야 할 저고리의 깃도 열려 부른 가슴팍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새웠다. 인담의 눈빛이 숨을 죽일 만큼.

“우행자!”

“우행자! 우리 제발 한번 맛있는 게쳐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지옥을 다 때려부수는 일을 해 보자!”

“살어! 살어!”

하고 우녀가 발작을 일으켰다.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인담은 가까스로 식칼을 빼앗겼다. 실로 엄청난 여자의 힘 때문이었다.

## 스님! 저를 아내로 삼지 않을 작정이면 이칼로...

“종은 왜 칩니까? 철위산의 어둠 다 몰아내고 지옥 아귀 축생의 괴로움 다 여의게 하고 칼산의 지옥을 부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식칼도 지옥의 칼 아닐까요? 이 칼로 아내 불붙은 가슴을 찔러 주시오.” 그녀의 눈빛이 새웠다. 인담의 눈빛이 숨을 죽일 만큼.

플마저 내버리고 만 것이다. 이렇게 인담의 고적한 무욕도 수행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흠, 흠”

인담이 코를 발름겨려 보았다. 이제까지 말할 수 없었던 비란 내기 냈다.

서너사람이 들어가 서 있기에 비좁은 법당은 인담이 나무로 새겨 만든 작은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그 불상 앞에 놓인 그릇속에는 물 대신 무려무려 김이 나는 국물이 차 있었다.

뜻밖이라는 듯이 눈이 커진 인담으로서는 크게 놀라기라도 해야 안성맞춤인데 그의 무심(無心)은 아직 그대로였다.

“이런 꽃 향기도 있나보군”이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 우녀가 짓긋은 듯이 노란 웃음을

플을 쏟은 바닷물을 보았더니 국물 속의 계가 살아서 물 속으로 잠겨 들어갔고 굴조차도 바닷가에 까발려진 굴껍질 속으로 들어가자 그 겹질이 꼭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때 우녀가 눈물이 그렇게지는 눈으로 새삼스러이 인담을 우러러 보았다.

“스님의 수행을 따라 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오. 내가 높은 도에 이르렀으면 그 국물을 맛있게 다 먹고 난 뒤 내 오줌과 똥으로 나온 그것들이 살아서 제 고향으로 살아 돌아갈 터인데... 나는 아직 갈 길이 먼 초발심자(初發心者)일 따름이라 저놈들을 가까스로 살려 준 것이요.”

“아아.”

처녀의 출무성한 몸에서 실로 어려운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그녀로서도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다시 그들의 일상생활은 이어졌다. 새벽과 오전의 선정(禪定)과 오후의 운력(運力) 그리고 초저녁의 자유가 그들의 하루인 것이다.

아직 우녀는 인담이 하는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다. 특히 선정의 시간에는 그녀 혼자 밖으로 나가 삼을 한 바퀴 돌거나 바다에 대고 물랭이를 멀리까지 던지거나 하였다. 그것은 아니면 수평선과 닿은 먼 하늘 속을 날오는 새를 시력(視力)이 좋은 눈으로 알아보며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불러대기도 하였다.

하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밥 짓는

일과 부엌 한이리에 물을 채우는 일 따위는 정상이었다.

며칠 뒤 인담이 그녀와 좀 떨어진 자리에서 불렀다.

“우행자(雨行者)! 내일 나는 육지에 건너갈 일이 있는데 이곳에서 혼자 지낼 수 있겠소?”

그로서는 이 남자를 때를 쓰다싶이 데려올 때의 하대(下待)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거나 지금은 그녀에 대한 참된 마음의 존대(尊待)를 하는 것이다.

그녀 쪽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저 등을 돌려버리는 몸자만이 어둠속에서 짐작되었다.

“나 다녀오리다. 그때까지 공부 삼아 외뽕이라도 외뽕고 무삼더라도 잘 견디고 나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있을과 다

### “ 물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배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 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최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불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 ① 위치(비연식)
- ② 공기(기) 펌프
- ③ 인연(기) 펌프
- ④ 냉각(기) 펌프
- ⑤ 냉각(기) 펌프
- ⑥ 투입(기) 펌프
- ⑦ 배출(기) 펌프
- ⑧ 소각(기) 펌프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1  
전화: (0344) 64-7236, 62-3488  
팩스: (0344) 62-7012

발명특허출원 94-8644 의장특허출원 94-8470, 8471, 8472